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6)	봉헌 (215)	성체 (166)	파견 (1)
---------	---------	----------	----------	--------

미사 전례 예절

- 봉헌 때 헌금을 내려 나가서 헌금함 앞에 이르기 한 두 사람 전에 제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예를 포함합니다. 봉헌함에 헌금을 던지듯 넣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소곳이 정성스럽게 봉헌 합니다.

- 성찬 전례 중 사제는 거양(擧揚 :들어올림) 성체(聖體) 후와 거양 성혈(聖血) 후에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표하는데,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거양 후 내려놓으신 다음 사제가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포함 할 때 거기에 맞춰 교우들도 함께 허리를 굽혀 깊은 절로 예를 포함합니다.

- 미사 성체 중에 사제가 말로 바치는 부분은 사제만이 할 수 있는 고유 부분으로 교우들은 걸으로나 속으로 따라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성찬 전례 중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부분 ("너희는 모두..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내 피의 잔이니..")과 파견예식 때 사제가 강복을 주실 때 성호경을 따라하는 교우 분들이 있는데 강복은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24	이 마틸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오로
7/1	유 요한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오로
7/8	이 그레이스	이바오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오로
7/15	이 마틸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오로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0	\$100	\$1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8/4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7/7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11	김 마론/ 김 헬레나
7/14	홍 마르코/ 홍 아네스	8/18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7/21	김 요아킴/ 고 안나	8/25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7/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9/1	손 아놀드/ 손 잼마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최희 마리나 | 아나운서-

창세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던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 그들을 심판하러 내려 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의인이 단 한 명만 있다면 그곳을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 그곳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흔다섯 명을 찾을 수 있다면, 또다시 마흔 명, 그다음은 서른 명, 스무 명을 물었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혹시 그곳에서 열 명을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물었고, 하느님께서는 그때에도 “그 열 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느님께서 “그 단 한 명을 보아서라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벌하고, 꾸짖으시기보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늦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한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 분이십니다. 한때 저는 주님을 잘잘못을 심판하시는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지시는 주님은, 엄격한 심판자 이기보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7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7 월 8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친교실 에서 모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오늘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소 공동체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성령 쇄신 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주부터 받습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No refundable reservation fee (개인당 \$20)를 참가 신청 시 미리 내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희생과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한없는 용서를 허락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죄의 심판에 앞서 많은 기회를 먼저 주시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나의 죄를 되돌아볼 시간과 여유를 놓치곤 합니다. 저 역시도 ‘자주 고해성사를 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난 판공성사가 마지막 고해성사가 됐네요. 사실 죄를 짓고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 하기도, 거짓말을 하기도, 주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좀 더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과 고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미사 중에 십자가의 예수님 얼굴을 올려다보니 예수님이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내려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죄를 위하여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서 가서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라’라고 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늦기 전에 고해성사와 묵상으로 저를 비워내야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언제나 열려있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꼬옥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 서울 주보에서 -